

다도해의 보석 섬

④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



외로워 아름다운 다도해 풍광의 정점

여수서 83km, 139세대 순박한 삶
정상 오르면 백도·거문도 한눈에
해수욕장·몽돌 해변...가족 피서지



손죽도 돌담길. 좁은 돌담길과 등산로를 쉬엄쉬엄 올라 정상에 오르면 인근 소거문도·평도·광도에 백도까지 한 눈에 쏙들어오는 풍광이 일품이다.

쉽게 닿지 않는 곳에 대한 신비로움과 낯설음 때문일까. 아니면 번잡한 도시를 탈출, 한적한 곳에서 해방감을 누릴 수 있다는 설렘 때문일까.

폐속선에 오르기는 커녕 표를 끊어 주머니에 쑤셔넣고 30분 남짓 기다리기만 했을 뿐인데, 마음은 벌써 출렁거리고 배에 오르자 설렘이 울렁울렁 흔들린다.

여수를 출항한 폐속선에 올라 물에서의 탈출을 감행한 지 1시간, 바다 위에 촘촘히 떠 있는 섬들 사이를 미끄러져 간 배는 손죽도(2.8km) 선착장에 여행자들을 내려놓았다.

여수에서 83km 떨어진 섬. 물으로 직접 가는 배편은 하루 한 편, 인근 거문도에서 파도가 높게 일면 며칠씩 발이 묶이는 외딴섬이다. 이러다보니 체감거리는 훨씬 멀게만 느껴진다.

오가는 사람이 적다 보니 자연 생태가 살아있고, 놓치면 후회할만한 볼거리도 많다. 때문지 않은 순박한 주민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것도 이 섬의 매력이다.

선착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마을과 앞에 펼쳐진 아담한 손죽해수욕장이다. 한때는 300가구가 넘게 살았다는 마을은 이제 139세대 266명이 전부다. 그나마 174명(65.4%)은 50대가 넘는다.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도 많지 않다.

섬 꼬마들이나 놀만한 손죽 해수욕장은 넉넉하고 아늑한 맛이 일품이다. 백사장은 500m에 불과하지만 모래가 무척 곱고 물살이 잔잔해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한참을 들어가도 물이 허리춤밖에 차지 않아 아이들 물놀이 해수욕장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잔잔한 바다는 바다의 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하다. 우연히 찾았다가 “이런 곳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 물이 깨끗하고 그리 깊지 않아 가족들이 놀기에 딱 좋다. 가족들과 피서를 이곳에서 보낼 계획”이라는 관광객들도 적지 않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설명이다.

해변을 따라 이어진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30분 정도 걸으면 이대원 장군 동상에 닿는다. 손죽도 해변이 한눈에 들어

오는 이곳에서는 시멘트 포장도로조차 주변 풍경과 멋지게 어우러진다. 이대원 장군은 왜구가 손죽도에 침입했을 당시 녹도만호로 있다 손죽도 해전에 출전, 싸우다 전사했다.

왜구로부터 마을을 지킨 이대원 장군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도 각별하다. 사당을 만들고 매년 송모제를 지낼 정도다.

섬 이름도 이 장군을 기리며 ‘손대(損大)도’로 불리기도 한다. 손대도라는 말은 이순신 장군이 지었다고 한다. 이대원 장군이 왜구와의 교전 끝에 전사하자, 이순신 장군이 ‘국가적 큰 손실’이라며 이같은 명칭을 지었다고는 것이다. 이대원 장군 동상이 있는 곳에서 밀으로 내려가면 접하는 몽돌 해변도 빼놓을 수 없다.

남나드는 파도에 씻기고 씻긴 돌들이 몽글몽글 깔려 있는 해변으로, 주민들은 “이왕 먼 길 왔으니, 꼭 가보라”며 자세히 일러준다.

주민들이 해변 끝머리에서 게를 잡는 모습은 평화롭기만 하다. 다만, 주민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사람 키만큼 자란 풀숲을 헤쳐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마을 뒤편으로 이어진 등산로도 가히 찾아볼만하다. 개밭의 손때가 묻지 않아서인지, 여전히 언덕 좌우로는 잡초들이 뒤엉켜 있고 잡목들도 무성하지만 최근 희망근로사업으로 등산로가 정비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쉬엄쉬엄 걸으며 경치를 감상한다 해도 3시간 정도면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손죽도 정상(깃대봉)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견줄 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일품이다. 쪽빛 바다와 주변의 점점이 떠 있는 섬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정상에서 소거문도, 광도, 평도에 백도를 바라보는 맛은 각별하다 못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하지만 섬을 일주하는 ‘코스’가 마련된다면 한결 멋진 여행 코스가 될 듯하다.

주변 볼거리가 적지 않아 손죽도만 둘러보기에는 다소 아쉽다. 배를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소거문도, 광도, 평도는 낚시대를 던져놓기 바쁘다는 낚시 포인트다.

섬 사람들의 순박함과 정교 여행지에서 맛볼 수 있는 매력

아담한 모래밭과 자갈 해수욕장, 탁 트인 옥빛 바다가 일상에 찌든 때를 쓸어가는 섬, 손죽도는 가뭇던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섬이다.<위> 아래는 손죽도 주민 김승열(48) 씨가 인근 해역에서 낚아 올린 2kg급 농어.



이다. 이방인을 경계하는 빛은 조금도 없다.

주변 볼거리를 찾아보겠다고 하니, 선뜻 자동차 키를 내어 주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변변한 식당이 없으니 이거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나”며 복탕과 갓김치를 선뜻 점심 메뉴로 만들어 내놓기도 한다.

오죽했으면 손죽도 내 초도분교 손죽분교로 부임한 교사들 사이에서는 (너무 멀어) 울면서 왔다가 (정이 들어) 울면서 간다는 말도 나온다.

홍현숙(여·46) 여수시 초도초등학교 손죽분교장 교사는 “육지에서 먼 섬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두려움도 순박한 주민들과 학생들과 어울리면 금세 사라진다”고 말했다. 가보지 않은 사람에겐 가고 싶은 섬, 한 차례 가봤던 사람에겐 다시 발길이 가는 섬이 손죽도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최고 명품유리 전시하는
대형 유리박물관 전시

유리박물관은 유리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유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유리의 종류와 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유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유리박물관은 유리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유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유리의 종류와 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유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2010 Gwangju VENICE GLASS

FANTASIA

2010. 6. 19(토) ~ 8. 22(월)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관(구 광주시립미술관)

- 관람시간 : (토)전 10시 ~ 18시 (일)전 10시 ~ 18시
- 관람요금 : (토) 10,000원 / (일) 5,000원
- 단체 관람객 할인혜택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후원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후원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후원